

# 시청률 1%대... '맨홀'에 빠진 KBS 드라마

### 2TV 수목극 '맨홀'... 참담한 굴욕 지상파 프리미엄 옛말...케이블에 밀려 '병원선' '조작' 등 10%대로 체면 유지 톱스타 배우들도 케이블 잇따라 출연

KBS 2TV 수목극 '맨홀'이 제목처럼 맨홀에 빠져버렸다. 지난달 31일 1.4%를 기록더니 7일에도 1.8%로 다시 1%대로 추락했다.

그전에도 2%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낙폭이 크지는 않으나, 명색이 지상파 드라마인데 1%대 시청률이라는 점이 충격적이다.

반면, 1%만 넘으면 기본은 한다고 평가받았던 케이블 채널 드라마는 어느새 시청률 10%가 넘는 성적을 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다채널 시대와 지상파 드라마의 경쟁력 추락으로 지상파와 케이블 드라마의 시청률이 역전되는 양상이다.

◇ 지상파 드라마 5% 아래도 잇따라  
'맨홀'은 아이돌 스타 출신 김재중과 유이

가 주연을 맡은 로맨틱 코미디로 관심을 모았지만, 닳고 닳은 타임슬립 이야기를 새

롭게 변주하지 못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특히 5년 전 나온 '프로포즈 대작전'과 똑같은 열개가 실망감을 안겨주고, 계속 꼬여버리는 상황은 집중을 방해한다. 시청률은 2%에서 맴돌다 지상파 드라마로서는 치욕인 1%대까지 추락했다.

지상파 드라마가 시청률 10%를 넘기 어려워진 것도 이미 수년 됐다. 과거에는 30%는 넘어야 인기작이라 평가 받았지만 어느 순간 10%만 해도 감사한 상황이 됐다.

'맨홀'이 1.8%를 기록한 지난 7일 MBC TV '병원선'은 11.3%~13.0%, SBS TV '다시 만난 세계'는 5.7%~6.4%를 기록했다. 그나마 10%를 넘긴 '병원선'은 히트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만난 세계'는 내내 5~6%에 만족 중이다.

MBC TV 월화극 '왕은 사랑한다'도 5~7%에서 맴돌고 있다. SBS TV 월화극 '조작'이 10~12%를 오가고 있어 그나마 월화극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 케이블 드라마 10%도 훌쩍...지상파 프리미엄 실종  
이런 와중에 tvN과 JTBC가 약진하고 있다. 이미 tvN은 올 초 '도깨비'로 케이블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던 시청률 20%를 넘어섰고, JTBC는 지난달 끝난 '폼위 있는 그녀'로 JTBC 드라마 시청률 역사를 다시 썼다. '폼위 있는 그녀'는 마지막회에서 12.065%를 기록했다. tvN '비밀의 숲'은 시청률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음에도 6.6%로 종영했고, OCN도 '터널'이 6.5%를 기록하면서 채널 이미지를 끌어올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케이블 드라마도 시청률 1%는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됐다. 여전히 수많은 케이블 프로그램이 0.5%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케이블 드라마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시청률 1~2%로는 성공작이라고 평가할 수 없게 됐다.

'정장'한 스펙의 기대작이었던 tvN '크리미널 마인드'가 시청률 2~3%를 기록하자 바

로 실패작이 된 것과 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3%는 되어야 하고 5%는 넘어줘야 케이블 드라마로서도 성공작이 되는 분위기다.

케이블 드라마의 시청률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지상파 드라마 프리미엄도 실종됐다. 스타급 배우들도 케이블 드라마에 잇따라 얼굴을 내밀게 됐고, 좋은 기회안은 tvN과 JTBC로 먼저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톱스타 이병헌이 주연을 맡은 '미스터 션샤인'도 내년 tvN을 통해 보게 됐다.

한 방송 관계자는 10일 "드라마 업계에서 지상파에 대한 프리미엄은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며 "지상파는 편성까지의 과정이 케이블보다 복잡한 데다 장르나 소재 선택에서 유연하지 않아 케이블채널과 작업하는 게 더 좋은 점도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최백호·정미조 방송서 첫 합동무대 '콘서트 7080' 내일밤 가을특집 방영

'낭만 가객' 최백호와 '돌아온 디바' 정미조(68)가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서 첫 합동 무대를 꾸민다.

두 사람은 15일 밤 10시 40분 가을 특집으로 방송될 KBS 1TV '콘서트 7080'에서 1시간 동안 공연을 선보인다.

최백호와 정미조는 기품 넘치는 음색의 뮤지션들로, 두 사람 모두 화가를 겸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특집의 제목도 '음악을 그리다'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히트곡을 노래하고 자신의 그림들도 선보이면서 창작에 관한 뒷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정미조는 지난해 37년 만에 극적으로 가요계에 복귀한 배경에는 최백호의 역할이 컸다는 사실도 얘기한다. 정미조는 최백호의 소개로 지금의 음반제작자를 만나 지난해 2월 컴백 앨범 '37년'을 발표했다.

특별한 무대로 마련된다. 두 사람은 페티김의 '구월의 노래'와 라틴 명곡 '베사메무초'(Besame mucho)를 처음으로 듀엣 하며, 각자의 히트곡을 바꿔 부르는 코너도 준비해 정미조는 최백호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를, 최백호는 정미조의 '개여울'을 새로운 감성으로 들려준다.

이 밖에도 정미조는 '휘파람을 부세요', '불꽃', '그리운 생각', 최백호는 '영일만 친구', '낭만에 대하여' 등 각자의 히트곡을 새롭게 편곡해 노래한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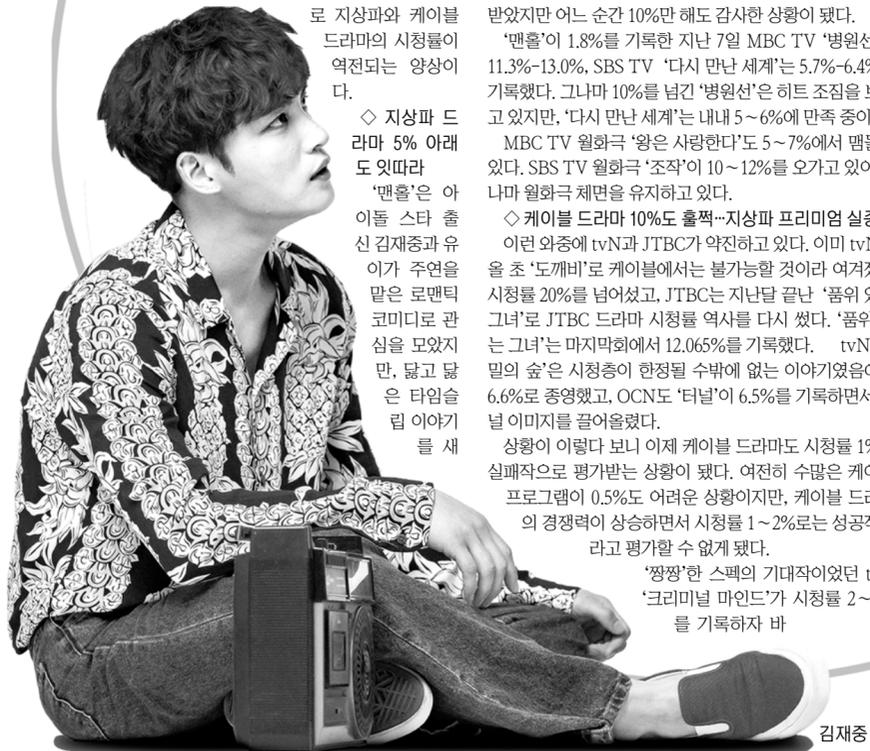
##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MV 2억뷰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FIR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2억 뷰를 돌파했다.

13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스페셜 앨범 '화양연화 영 포에버'의 타이틀곡인 '불타오르네'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1시께 유튜브 조회수 2억 건을 넘겼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불타오르네'와 '쩨어' 등 2억 뷰 돌파 뮤직비디오 2편과 '피 땀 눈물', '상남자', '세이브 미'(Save ME), '낫 투데이'(Not Today), '봄날' 등 1억 뷰를 넘은 뮤직비디오 5편을 보유하게 됐다.

/연합뉴스



김재중



유이

### TV 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랑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재)	00 TV소셜 키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재)	50 병원선(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50 숨터(재)	50 제보자들(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행이 보인다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편설계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55 VJ 특공대(재)	00 MBC 정오뉴스 20 밤상 차리는 남자(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편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나눔의 행복, 기부(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40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5 다큐 공감(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10 뽀글이 사랑해(재) 40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	00 4시 뉴스집중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이캡 15 티빙메카드 W 2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재)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행건축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특생방송 TV블로그 품자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 24 55 영마의 소개팅	45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대기화 UHD 순례 4부작			
10	35 감성투 고합습니다 2 45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00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00 병원선	00 다시 만난 세계
11	30 KBS 뉴스라인 5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0 해피 투게더	10 MBC 스페셜 (마지막 선택, 아름다운 마무리)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UHD 특선 드라마 화랑(재)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물랑
05:30 통일의 길 (모란불약단)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06:20 세계테마기행(재)	(피인애를 치킨볶음밥)
(일면 알수록 궁금한 미안마 4부 거꾸로 가는 시간여행 경로)	11: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12:00 EBS 정오 뉴스
07:30 또딱맨	12:10 장수의 비밀
07:45 뽀롱뽀롱 뽀로로	(가을 섬 기획 1편 -님과 함께 울릉도에서)
08:00 뽀롱뽀롱 뽀로로	12:40 지식채널e
08:30 뽀롱뽀롱 뽀로로 1~2	12:45 명의(재)
08:30 중동탐험대 고고다이노(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08:45 수학이 아호	(아버지의 마지막 상어잡이)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14:30 레인보우 루비	08:40 다큐 오늘
15:00 사이언스 맥스(재)	20:50 세계테마기행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저 푸른 초원 위에 물고기 4부 여니의 호수 테러형차)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21:30 한국기행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바람의 언덕 4부 구름 속의 산책)
16:30 수학이 아호(재)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16:45 뽀롱뽀롱 뽀로로 1~2(재)	(진실을 밝히는 힘, 과학사)
17:15 웅감한 소꿉친구 레이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7:30 똑딱맨	23:35 아줌마 고민 상담소
17:45 뽀롱뽀롱 뽀로로	수상한 철학관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4	24:25 지식채널e
19:00 사이언스타 Q	24:30 EBS 스페이스 공감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4일 (음 7월 24일 甲辰)
<b>子</b> 48년생 행운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60년생 전대미문의 파문을 물고 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72년생 변화하는 정황까지 감응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84년생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전혀 애태를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04, 19	<b>午</b> 42년생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한 기로에 놓여 있다. 54년생 입체적인 구도가 절실할 요충된다. 66년생 강력한 기세이다. 78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90년생 활기차게 진행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94
<b>丑</b> 49년생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 61년생 현대에 국한하지 말고 넓은 시야로 바라보자. 73년생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후일의 안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85년생 지난해의 공적으로 인해서 열렬히 환영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3, 53	<b>未</b> 43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면하겠다. 55년생 소홀히 여기지 말라. 67년생 실재하지 않던 아무 의미도 없다. 79년생 정확성만이 후일의 안전을 담보하리라. 91년생 충분한 보안을 지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20, 15
<b>寅</b> 50년생 향후의 진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62년생 만족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74년생 현황처럼 계속해서 내버려 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86년생 지금 갈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뒤탈을 없애는 길이다. 행운의 숫자 : 80, 00	<b>申</b> 44년생 말문이 터져 나오려 하더라도 꼭 참고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어야만 탈이 없다. 56년생 신운이 자분이 되어 기쁨을 주는 날이다. 68년생 여태까지 인지하지 못하였던 배에 대한 궁금증이 풀린다. 80년생 불타오르는 기세다. 행운의 숫자 : 64, 95
<b>卯</b> 51년생 듣기라도 좋게 맞장구를 쳐 주는 것도 괜찮다. 63년생 숙명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난이 뒤따른다. 75년생 실익이 없다면 아예 다룰 필요조차 없다. 87년생 흥결이 발생하지만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3, 87	<b>酉</b> 45년생 아직은 활발하나 곧 이어서 진로의 행방을 좌우할 만한 변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57년생 운명은 용기 있는 자를 사랑하는 법이다. 69년생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81년생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77, 27
<b>辰</b> 52년생 지출은 투자가 될 것이니 아끼워지지 말라. 64년생 양호하지만 마무리가 어렵다. 76년생 지금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더라도 안정시킨 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할 때다. 88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93, 79	<b>戌</b> 46년생 자שה 들어다보면 전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면이 반드시 보일 것이 무리 없이 처리하여야만 한다. 58년생 징후는 현상을 동반하게 되리라. 70년생 간발의 차이가 어렵다. 82년생 실제적이고 유익해야만 의미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9, 18
<b>巳</b> 53년생 일기예보에 능해야 한다. 65년생 정답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이므로 관행에 구애받을 필요 없다. 77년생 견주어 본다면 한 눈에 쉽게 드러나리라. 89년생 시기가 임박하였으니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04, 84	<b>亥</b> 47년생 객관적 인식이 정확한 판단으로 이끈다. 59년생 현안의 특수성까지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71년생 맞부딪치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라. 83년생 중요한 수단을 확실히 거나 계기를 마련하는 기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8, 36